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月定購讀料 二十五圓

社說

# 八·一五記念의意義

一

八月十五日 解放의날은 우리民族에게 政治 經濟 社會의 廣汎한 革命의遂行을 前提로한 建國偉業의 發程을 본날이다. 우리가이날을 記念코저하는것은 우리民族이 三十六年間 倭敵의强盜的 支配下에 呻吟하면서 自由解放을 보려든 피와눈물의 歷史가 聯合軍의正義의鐵槌로써 倭의打倒를보며 世界民主化를 遂成하는一環으로서 그實現을보는同時에 自主獨立國이 約束되였다는 世界史的感激을 永遠히 保하며 뜻깊게하자는데 그 意義가 있는것이다. 保護條約以來 實로四十年間 祖國愛에 불타는만흔 先烈의 有名無名의犧牲과 오늘全民族的解放과 建國의革命的熱意는 이날을期하야 다시追憶되고 크게發展昻揚을 보아야할것이다。

二

지난봄 解放後 첫번 마지한 三一記念國慶日에도 左右의對立으로 擧族的行事의一元化를 못보는不快하고도 恥辱스러운先驗이 그後의對立의 尖銳化로 이번解放記念行事에도 合作의光彩이 없이 一案을討究한것이 左右黨色없이 하ー지將軍을 會長으로하고 美軍과 우리의各團體가 合同하야式에臨하라는것으로 된모양이다. 解放의恩人인美軍과의 合同은 果然名案일수도 있고 그式自體가 記念할만한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날의 解放記念을 決코 形式的인 祝賀行事로의 昻揚만으로 滿足할수 없다。民族的解放鬪爭史를 背景으로하야 將來케하여야할民族의 革命意欲、建國의設計가 遺憾없이 潤澤하게 表現되여야한다 이날 記念式의 指導로 오직 여기에 있어야 할것이다。

三

우리가 解放의 이날을 마지하려는 感激과 熱意는 이렇다하겠지만 이날의 記念式과行事의 指導에臨할 役員中에는 解放以前의 그地位와 閱歷으로보아 解放以前에 어느한때인들 解放을 꿈에도 못주어보았을 人物이 最高位에있음을 發見할때 이는 聖스러운 解放의式典을 매럽히는것이요 民衆의革命的 感激을 蹂躪하는것박게 아닌것이 없을것이마로斷이지면 言하는바이어야 解放鬪爭等因緣없는人物이 命、여기에는 抗日反帝日에登場함은 의은일없는 과의鬪爭이이냐。 있었을뿐이다。 아코고 舊國고日帝 奪의全面的인 去根과賊 淸이要請되고있음은 全民族의意思이다 解放記念日에도 이點이强調되여야할것이다 特히 近者에 前日의 親日、反逆賊의 謀利輩가 軍政下 公私重要機關에 多數 넘나들고있음은 자못 不快하다 이때문에 昨年解放直後의 嚴肅한 感激은 이때문에 많이 抹殺되고있음도 一面은일

四

革命四十年間의鬪爭한 歷史를가진우리는 民族的先輩老鬪士로 많이가 있었다 新進氣銳의 熱血의 靑壯年猛將으로 많다 우리民族의血管속에는 이러한 老少鬪士들의 精力的인 意志와氣慨가 흐르고있다 左右取은 老少의合作은 못보고있다하며대로 主義와思想의對立은있다하며대로 過去그분들의 鬪爭에서 다기운 曲折不屈의 人間的情熱에는 記念이마、어느時期를지나서 순연다가든指導者로統一結束될것을願하는것도 우리民族의 大多數의 共通된心理일것이다 解放民族記念날 指導從에 우이解放의 산歷史인 鬪士들의 일줄이없음은 내한이실생한일이다 그러나 이날의式은어데까지나 式으로서의 盛大만은 期約할것이다 可能하면 이제라도 指導人物의改替를期할것이다 그러고이와가든人物配置로써 하ー지將軍의聰明을 며럽히는 그側近者들의反省이있어야할것을注意코저한다。

# 「마」「스」兩氏의調停失望

# 美對中政策變更?

## 注目되는蔣主席의重大聲明

蔣介石氏

마ー샬氏

朱恩來氏

【南京十一日發AP合同】 美特使「마ー샬」氏와 駐中美大使「스뚜엇」博士는 現在까지 前例없는 共同聲明을 十日發表하고 全面的停戰을 圖謀키爲하야 國共兩側이 그 紛爭을 解決함에 到達할것은 거이 不可能한것으로 생각한다고 言明했다 이共同聲明은 新聞記者에게도 發表되였다

…特使는平和樹立을爲해서 努力할것으로보고있다 그러고上海「올써ー바」間에는 中國再建에關한 政治的經濟的新計劃에 對해서 來十四日蔣主席이 重大聲明을發表할것이다는에 對하여 若干希望을주고있다 그러나蔣主席은 이聲明에있어서 中央側이 容納할수있을만한 讓步는 하지않을것이라고 보는바이다

…으로 觀測되며 그러고共產黨側의在華美軍撤退要求는 目的을達한것으로 觀測되며 今般共同聲明은 그만앞으로 美國의協에는限度가있다는 對中政策轉換을 招來할는지모른다 또環境에 依하여는 今般兩氏가表明한悲觀論이 中國政客들에게 一大反響을이르켜 그結果 最後의破局을未免하게 될지도모른다 或은平和를渴望하는 中國民衆의 呻吟소리는 延安 南京의固執을 풀디지게 될는지모른다

…的態度를取하여왔다 撤退하나 蔣主席과같은指導者마로 비록內閣의要處가있다 …에는限度가있다 中國共産主義者를 現在그限界線背後에서 公々然하게 美軍을攻擊하고있는것이다

## 國務省과 議員側談

【華盛頓十一日UP發朝聯】 國務省代辯人은 다음과 같이말하였다 「마ー샬」將軍과 「스뚜아ㅡ드」駐中美國大使가 國共調停에 失敗하였다는 共同聲明을 發表한데 關하야서는 아직 確實한 報告에 接하지못하였다고한 國務省으로서는 確實한報告를받기前에는 正式으로무엇이라고 이에對하야말할수없다」

最近中國을訪問하고도라온 「코ㅡ마ㅡ」「크로ㅡ포ㅡ드」共和黨議員은 中國의事態를收拾하는데있어서 美國은좀더强力한 行動을取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力說하였다 「美國이中國問題解決을 보아도부러손을뗀다면 蔣介石主席으로서는 이難事業을到底히 堪當하지 못할것이라 우리는中國에서主導的地位에 있었음에도 不拘하고共產軍을 粉碎하지않고 懷柔政策을 손까딱이 失敗를보았다 「마ー샬」將軍은 이제야이를發見하였다 이같은脆弱한政策은 中國뿐아니라 어느곳에서나 成功하지못할것이다」

## 蔣主席聲明?

【南京十二日發AP合同】 中國의和平樹立不可能에關한 共同聲明을發表한「마ー샬」特使는繼續하야 蔣主席과和平樹立에對해서 交涉을進行시킬것이라고하는데 이에關聯하야 當地中央日報、和平報는 悲觀的見解를披瀝하고있다 그러나大公報는 「마ー샬」特使의 使命이失敗되어서는 않될性質의것임으로「마ー샬」特使는 中立的立場에서繼續하야積極的으로努力하여주기를要請한다고말하였다 그러고同紙報道에依하면 蔣主席은 새로히 讓步할可能性이있으며 蔣主席은十四日中國民에게 重大聲明을發表할것이라한다

## 마特使歸美說

【上海十二日發AP合同】「마ー샬」特使와「스뚜엇」博士의共同聲明으로因하야當地에서는「마ー샬」特使가美國으로歸還하리라는風說이巷間에流布되고있으나 識者間에서는이러한風說은수히一笑에附하여「마ー샬」

## 美陸戰隊의一部 不遠中國서撤退?

【南京十二日發AP合同】 中央通訊이傳하는바에依하면 美陸戰隊의一部는 近々中國으로부터 撤退할것이마하며 北平停戰執行委員本部言明에依하면 同本部는 近々解消될可能性이있다한다 本部側에서는「마ー샬」特使와「스뚜엇」博士共同聲明에共鳴하야 中國의和平樹立에對한 希望은없다고보고있는데 現段階에있어서 停戰執行委員의存置는거이無意味한것으로보고있다 그러고中央通訊이傳하는바에依하면 靑島에駐屯中인美陸戰隊司令官「크레인」代將은 靑島에駐屯하고있는美陸戰隊의一部를美國으로送還하고 其他는他地區로移送되거나 또는 靑島에殘留할것이라고한다 이報道에對한眞僞는아직明白치않다고한다

## 紐育타임스紙社說

【紐育十二日UP發朝通】 紐育타임스社說은 「마ー샬」「스뚜어트」共同聲明에 對하여 다음과같은 社說을揭載하였다 「마ー샬」將軍의 使命은 決定的으로失敗한것이다 國共雙方은모다 頑迷와 固執으로 우리가말하는民主々義는 그들에게서차저보기어렵다 그러나重要한事實은 國民政府가 中國人口의 五分之四를 代表하고있다는것이다 蔣介石主席은 오날까지 妥協…

## 戰爭? 平和?

### 中共周恩來氏談

【南京十一日發AP合同】 周恩來氏는「마ー샬」特使及 美大使「스뚜엇」… 「마ー」特使及「스」大使와의 會談時에는 … 共同聲明發表에 關해 아무런 示唆도 받지않었다 何如間 우리가 當面하고있는 問題는 戰爭이냐? 平和이냐? 또는 民主主義를 選擇하느냐에 있는것이다

## 「파레스타인」問題

### 美英서協案作成

【워싱톤十一日發AP合同】 美國務省當局은「파레스타인」聯邦化에關하야 美英間에 介在한意見의 相違點을 解決하려는 … 妥協案을 作成하였는데 이妥協案은 今週末巴里에서 美國務長官「번스」 英外相「베빈」兩氏間에 討議될터이며 來週에는 「트루맨」美大統領과 英首相의 最後決裁가 있을것으로 期待되고있다

## 朝鮮共産黨內紛後聞

# 黨大會召集提唱

### 一派專橫克服淸算과

左翼三黨合同問題를契機로 朝鮮共産黨內部에는 現幹部派의派閥的專橫을 指摘하고 이에積極反對를表明하고 既報=「合黨問題에對하여 黨內同志諸君에게告한다」이라는聲明書를 發表하야 … 우리는民主主義的新朝鮮建設의强力한實踐을爲하야 反動陣營의機動的攻勢를防遏키爲하야 黨內의可憎可惡한「트로츠키스트」的宗派性과 一派專制主義에依하여 … 黨大會를急速히召集할것을提唱하는同時에 …

一、合黨의原則的前提로서 必要性및正當한方法을充分히批判認識할것

二、結黨以來一年間黨의路線及其業績에對하야 報告批判하여서 總決算을할것

三、北朝鮮의民主主義的建設은 三相會議決定의支持階段을 넘어서 實踐完遂의階段에 드러간것을 再認識再强調할것

四、反民主主義的勢力의 客觀的動向에따라서 우리의 戰略戰術의發展變化의 基準을 再檢討再決定할것

五、黨指導部의黨中央組織과 無原則無規律한派閥精神에依하여 必然的으로 派生된 機會主義的 … 機의時形的進行、黨派의 互相離間、有能한人才의排除、指導의無計劃、混同等、黨內無原則의 擴張的傾向、組織破壞의 一派專制主義에 對하여 黨大會의權威로써 徹底히克服淸算할것

## 新參加國問題로 一大論戰이豫想

【巴里十二日發AP合同】 十二日巴里媾和會議는 … 新參加國問題에 對하야 相當한 論戰이 展開될것으로 豫測되고있다

## 人事消息

△李仁秀氏(朝鮮土建日報社長) △李全氏(同社主幹) △康濟樂氏(同社編輯局長) 人事次來社

△白南九氏(國族宣揚會總務部長) 同會結成人事次來社

△朴炳奎氏(城都中學校敎務主任) 人事次來社

## 民族統一本部

### 各部署決定發表

民族統一總本部에서는 其間各部署責任者를 人選中이든바 十三日午前十一時 同本部事務局에서 다음과같이 發表하였다

△事務局長 金尙德 △宣傳部長 洪性夏 △財政部長 金良洙 △政經部長 李允榮 △勞働部長 錢鎭漢 △婦女部長 金朴賢淑 △靑年部長 金孝錫

## 人民黨서

### 合黨問題協議

人民黨에서는 十二日下午二時부터 中央執行委員會를開催하고 過般決定된 左翼三黨合同原則을上程하여 再次討議하는同時에 그後의合同工作進展에關하여 協議하였다한다

## 八面鋒

◇國共停戰不可能을 「마ー샬」氏와「스뚜엇」博士가 共同聲明으로 悲慘한崩壞를 防止치못하고 紛爭만일삼는 中國의現實은 남의일이않이오 朝鮮의 處地와도彷彿。中國의平和와 朝鮮의獨立은 世界의幸福。

◇聯合國間의關係는 港會議以來 惡化의一路 論爭으로疲困할程度이다니 으르렁거리는까닭은 果然무엇인가 平和를바저벌 產前陣痛이라면 좋으련만 嵐前靜寂이다면 큰不幸。

◇傀儡 戰犯公判에 證人으로 出頭하다니 身勢가字대로 崎嶇。淸朝末의宣統帝로 滿洲傀儡皇帝로 이번엔法廷出入까지。中國의近代史를 一身으로經驗。

# 今後의 進路

## 우리는 무엇을 할가

金炯元 ④

다음에 우리는 臨時政府의 還國以來의 動向에 對하야 嚴肅한考察을하여볼 必要가있다。己未運動以後二十有七星霜、上海에서 南京에서、最後에는長沙 廣東을거치어 重慶에 이르기까지 말로써다할수없는 [illegible] 헤아릴수없는 苦難을겪거가며 오즉祖國의光復을 爲하야一路血鬪하여온 金九主席以下諸公의功績은 暫時論外로하고 一旦祖國解放의喜報를 듯고는 그리운祖國의 품속에 뛰어들自由조차없이 解放百餘日이 지나 昨年十一月下旬에야「政府자격이아닌個人의資格」이라는 制約下에 還國하게된 그들의心情이야말로 그들當事者들만의 悲哀가않이였다。獨立의날이 오늘인가 來日인가 重慶臨時政府가 어느날이나돌아오는가 하고 기다리든 國人의 渴仰은實로 形言할수없는 데에 臨政의還國은 國人의눈에 커다란希望을비추어 주었든것이다。그러나 들어온臨政은 複雜한國內事情을 채 파악하기 前에 十二月二十八日(實로民族的으로 記憶될날이다)

# 反託은民族至上命令

## 「臨政」還國後의行動考察

莫府의一電이 所謂信託統治를傳하게되매「信託은解放에서拘束으로의 逆轉이요 民族的恥辱이다」는見解下에 全國的擧族的反託運動을展開하였다。一方莫府三相會議를支持하자는 所謂左派의運動에對하여서는 後退하다하거니와 臨政의領導下에 右派連衡으로 反託運動을展開한것은 비록個人資格이라할지라도 臨政派의正當한路線이오 還國後처음으로 重大한問題에逢着하여 臨政派要人諸公의政治的力量을 보일수있는 絕好의機會이었다 左派의主張은 別問題로하고 아모리 左派라고 할지라도 民族的良心이 있는者라면 信託을甘受하여 自主獨立을 원어버리는者는 없을것이다 … 反託運動이야말로 左右도없고 老少男女도없이 한결같이 合流된民族的至上命令이었다 그런데도不拘하고 臨政要人은 이運動을積極的으로 … 하여가지고 獨立黨이니 革命黨이니 自由之亂을 일으켜서 自衛를 … 失手다하여 非常國民會를召集한것은 臨政의法統上 있을수도 있는일이라고 寬大한 評을 할수있으나 民主議院에參加한 非常政治 … 一夜之間에 變 … 이나 融通보다는 차라리 어디까지던지 個人資格으로서 始終一貫 國民運動의指導者로서 建國의役軍이되는것이 올치않았을가「뭉치면 … 民主議院에參加함은 軍政에協力함이아니라 오히려 軍政에依賴(本意는아닐지라도)하는 結果를 가져오는것이니 一種의依他主義요 事大思想이다。政治는理論이않이오 實際라고하더라。實際를尊重하기에 依他主義를가지고는 建國大業은 이룰수없고 事大思想을가지고는 革命完遂를바랄수 없다는것이다。우리民族國家의 亡한歷史를볼때에 依他主義 …

# 八·一五앞둔 "治安陣平穩"
## 浮言浪說에市民은迷惑들말아오
### 張廳長의警告

# 愛國의情熱·젊은意氣
## 八·一五記念 青年男女團體聯合雄辯大會

# 解放記念 貯蓄運動

# 一世帶에約千圓
## 水害罹災民救濟金分配

# 小町會統合에
## 市當局·九十餘個所整理方針

# 遞信文化協會
## 解放을記念結成

# 李觀述送局
## 僞幣事件嫌疑者

# 團體動靜

# 시골소식
## 八一五紀念行事
## 革靑團員募集
## 面民이總動員勞役

# 文化
## 夏期音樂講習
## 國學講習會

# 돌아온 열일곱해 (4)
##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 敵産에眩惑·謀利에汲々
## 解放과自由를惡用·醜態만百出

(계속)

## 牛馬를愛護합시다 (酷使畜防止)

十三日(火曜) 陰十七日 干支 己未

## 放送

## 新刊紹介
△女性文化 第二號 女性文化社發行


第一回 紳士服洋裁 短期男女講習生募集
紳士服部 夜間 五十名
洋裁部 晝間 五十名
講習期日 八月十六日부터二週日間
會場 鍾路區公平町會內(鍾路國民學校裏面)
申込場所 京城中區本町二丁目八一 文化院 (電本局一五七一)
主催 文化院 後援 中外新報社

巢礎製造販賣
明治町三丁目一五〇 朝鮮蜂蜜商會

朝鮮日報社 廣告部 電本局三三八五番

KPK 케피케
金海松樂團
尹富吉·金海松 合作兼演出
오페렛타 물네방아 15景
金貞桓裝置
李蘭影·張世貞·王銀花·黃順德
金海松·尹富吉·玄景燮·姜俊喜 外數十名
十字社特作音樂映畫
同時映寫 流浪의王子 10卷
城南第1回進出公演
14日부터

高麗文藝普絃樂團
14日부터 劇團 土月會 劇團 三千里 創立公演
〃謀逆의血〃
〃山有花〃
朝鮮最初로登場하는國文新版!
R·K·O超特作·新輸入映畫
19日부터 偉人 아부라함링컨 12
南北統一을시키고黑奴를解放시킨偉大한歷史